

## A. 먼로, A. 프루의 단편에 나타난 혐오: 본능적 감정인가 학습된 감정인가

강 병 희  
한국의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가정 및 사회에서 폭력으로 표출되는 혐오의 감정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공동체에서 습득되는 것임을 현대 두 단편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때 누스바움이 천착하고 있는 혐오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감정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이해에 따른 사고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분류하고 투사적 혐오는 학습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1장 엘리스 먼로의 「차일드 플레이」에서는 장애인을 향한 주인공의 혐오가 원초적(본능적) 혐오가 아닌 투사적(학습된) 혐오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이 혐오감을 어린 시절 주위 환경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투사적 혐오가 아이들 사이에서 연대와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 애니 프루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는 인물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고, 혐오가 폭력을 통해 전수 및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기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특히 주인공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혐오, 투사적 혐오, 원초적 혐오, 마사 누스바움, 폭력

## 1. 들어가며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2004)에서 ‘혐오와 수치’라는 감정이 법적 처벌에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sup>1)</sup> 그에 따르면 감정은 배고픔 등과 같은 원초적 욕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패한 음식 등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기피와는 다른 사고 작용으로 일어난다. “감정에 있어 대상이 하는 역할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러한 대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56). 또한 느낌과 감각과 다르게 “감정은 대상에 대한 믿음(때로는 매우 복잡한 믿음)을 수반한다”(57). 대상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 반응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믿음 등 사고 작용에 따른 결과이다. 가령 “두려움은 미래에 곧 닥칠 수 있는 나쁜 가능성들에 대한 믿음을, 분노는 부당하게 가해진 손상에 대한 믿음을 수반하고, 연민은 다른 사람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60) 누스바움은 이러한 감정 중 “혐오”(disgust)<sup>2)</sup>에 천착한다. 그는 “혐오가 우리의 진화에 귀중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의 일상적인 삶에서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36)며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 역할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혐오라는 감정이 대개 사회적으로 비합리적 믿음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통찰한다.

그는 혐오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타인에 대한 연민』 (*The Monarchy of Fear*, 2018)에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원초적 혐오”(primary disgust)와 “투사적 혐오”(projective disgust)로 구별한다. 원초적 혐오는 인간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싫은 반응이다. 반면에 투사적 혐오는 인간이 원초적 혐오감을 취약한 사회 집단에 투사하고 타자화하는 감정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신체의 훼손, 사체 등에서 혐오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혐오감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타인과 그룹에 투사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다른 외모나 생각을 지닌 타인이나 그룹에 혐오감을 투사하고 그들을 향해 전염될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배척한다. 이렇듯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로부터 투사적 혐오를 분리해서 현대사회에 만연된 혐오감이 비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은 카롤린 엠케(Carolin Emcke)가 『혐오사회』 (*Gegen den Hass*, 2018)에서 현대 독일 사회가 직면한 혐오 문제를 분석하며 “혐오와 증오는”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아니”라며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는 주장(22)에서도 확인된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인종, 젠더, 계급 그리고 종교 등의 차이(다름)를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으로 가치 판단하여 타인과 다른 집단들을 타자화해왔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직장, 사회, 국가, 국제간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 또는 자신들이 속한 그룹을 정상이라고 전제하고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게 혐오를 투사한다. 이때 혐오감은 그룹 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타 집단을 더욱 배척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장애인, 동성애자, 빈자, 노인, 난민 등 혐오 대상이 더 세분화되고 확대될 뿐 아니라 혐오감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날 대중은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혐오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현대인들은 혐오 가해자이며 동시에 혐오 피해자일 수 있다.

타인, 일단의 그룹 나아가 한 국가, 민족, 그리고 인종을 배척하며 혐오감을 그 이유로 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본능적으로 싫다’고 함으로써 상대가 관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단어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물을 수 없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감정이라는 암묵적이며 지배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육체, 가족, 국가, 인종 등을 태생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본능적 혐오감이라고 하면 육체적 감각적 느낌으로 주체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혐오감을 타인 또는 다른 그룹에 투영하는 것은 조정이나 화해가 아닌 분리와 제거의 열망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가정 및 사회에서 폭력으로 표출되는 약자와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닌 공동체에서 습득되는 것임을 현대 두 단편, 앨리스 먼로(Alice Munro)의 「차일드 플레이」 (“Child’s Play”, 2008)와 애니 프루(Annie Proulx)의 「브

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1997)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두 작품을 선별한 이유는 각각의 작품이 장애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육체와 관련되어 본능적인 감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들에 대한 혐오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투사적 혐오는 피할 수 없는 본능적 느낌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감정임을 밝히려 한다. 1장 면로의 「차일드 플레이」에서는 장애인을 향한 주인공의 혐오가 원초적 혐오가 아닌 투사적 혐오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이 혐오감을 어린 시절 주위 환경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투사적 혐오가 아이들 사이에서 연대와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 프루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고, 혐오가 폭력을 통해 전수 및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기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특히 주인공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차일드 플레이」: 투사적 혐오, 그리고 연대와 배제의 기제

누스바움<sup>3)</sup>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약자를 향한 혐오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며 위험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혐오라는 감정 속에는 동물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와 결부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주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사회적 실천과 연결된다. 우리 인간이 동물적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불쾌함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규범적인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응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는 열망을 담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열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심각한 피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144)

누스바움은 인간이 자신들의 육체적 동물성에 느끼는 불쾌감을 다른 취약 집단에 혐오감으로 투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투영이 인간의 육체적 불완전성 즉 손상, 부패 등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비합리적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노인 등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는 성소수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수의 그룹에게 혐오를 투사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한다고 해서 인간의 동물성 및 유한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 집단을 향한 혐오감이 투사적 혐오임을 밝히기 위해, 먼저 먼로의 「차일드 플레이」에서 어린이들이 또래 장애인에게 보이는 혐오감이 ‘본능적인’ 것인지 ‘학습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일드 플레이」 마지막 장면에서 9-10살인 말린(Marlen)과 샬린(Charlene)은 캠프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물놀이 중이다. 그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특별한”(special) 베르나(Verna)가 파도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고 물속에 빠지는 것을 발견한다. 화자 말린은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 ‘special’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둘은 순간적으로 베르나의 머리를 함께 눌러서 발버둥치는 그녀를 익사시킨다. 도대체 어떻게 말린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2주 캠프에서 처음 만난 샬린과 함께 캠프 마지막 주말에 온 베르나를 익사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단편의 제목처럼 아이들의 순간적인 장난의 결과일까.

평자들은 말린과 샬린이 또래 베르나를 향해 느끼는 반감에 주목한다. 수잔 워릭(Susan Warwick)은 자신의 논문 「앨리스 먼로 그리고 살인의 수치」 (“Alice Munro and the Shame of Murder”)에서 먼로의 몇몇 작품에 나타나는 살인을 탐구하며 주체가 타자에게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위태로운”(precarious) 존재 즉 ‘약한’ 존재를 향해 살인의 욕망을 느낀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sup>4)</sup> 특히 「차일드 플레이」의 샬린과 말린이 베르나를 죽이는 것은 베르나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142), 즉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함에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르두치(Dilia

Narduzzi)는 자신의 논문에서 혐오의 양상 및 영향에 대해 살펴봄에 베르나의 죽음을 말린과 살린의 “혐오감의 해소”(83)라고 규정한다. 즉 베르나를 향한 혐오를 살인의 원인이라고 밝힌다. 이 평자들처럼 대부분의 비평은 말린과 살린이 장애가 있는 베르나에게 느끼는 혐오와 그 영향에 대해 살피지만 말린과 살린이 베르나에게 느끼는 혐오감의 근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평자들이 장애가 있는 베르나를 향한 말린과 살린의 혐오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베르나를 향한 말린의 혐오는 본능적인 느낌으로 원초적 혐오일까.

위릭의 지적처럼 이 단편에서는 베르나에 대한 혐오와 혐오의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142), 표면적으로 혐오감이 본능적인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퇴직한 화자 말린이 7살 때 베르나를 만나 “맨 처음부터 그 이전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혐오감을 느꼈다”(325)고 직접 말한다.<sup>5)</sup> 처음부터 혐오감을 느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녀를 향한 반감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함의한다. 또한 베르나에게 느낀 혐오감을 신체 감각기관의 느낌을 통해 표현하는데 이것이 본능적인 반응으로 읽힌다. 먼저 베르나에 대한 화자 말린의 시각적 묘사부터 살펴보면,

그녀는 말랐고, 정말 빈약한 가는 몸에, 뺨을 연상시키는 너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가는 검은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납작하게 늘어져, 그녀의 이마 위에 붙어있었다. 그녀의 얼굴 피부는 펄럭이는 오래된 캔버스 텐트처럼 칙칙해 보였고, 그녀의 뺨은 바람에 펄럭이는 텐트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은 사시였다.  
(「차일드 플레이」 325)<sup>6)</sup>

뺨을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 탁한 피부, 사시의 눈을 가진 베르나는 외형적으로 갈색의 파란 눈을 가진 말린 자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게다가 홈 부인(Mrs. Home)의 손녀라며 갑자기 함께 살게 되었지만, 베르나가 홈 부인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세대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325)는 서술에서 베르나가 외형적으로 파란 눈에 갈색 머리 백인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 강조된다. 보통의 서양인 외모도 아닌데, 사시 눈을 가진, 즉 신체장애가 드러나는 베르나의 모습은 시각적으로 말린에게 싫은 감정

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청각적 반응으로 말린은 베르나가 “보통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며, 그녀의 발화를 “목에 걸린 말의 덩어리”라고 묘사한다(325). 말린의 서술에서 베르나가 나이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베르나의 발화에 대한 말린의 청각적 반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 촉각적인 반응으로 말린은 베르나의 신체 및 그녀와의 신체적 접촉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동물 및 동물과의 접촉에 비유한다. 가령 말린은 베르나의 머리가 뱀을 연상시키고(325),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돼지 등의] 주둥이”(cold snouts, 327)같고, 또한 양털 옷을 입고 있는 베르나의 배에 닿았을 때는 “징그럽고 단단한 배의 피부에 있는 뽀뽀한 털”(328)을 만진 것 같다고 서술한다. 다르치(Heidi Darroch)의 분석처럼 말린은 베르나를 향한 “혐오감과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해 동물의 특징과 비교”(115)하고 있다. 요약하면 화자 말린은 베르나를 향한 “부정적 정동 반응”(Narduzzi 75)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표현하여, 베르나를 향해 느끼는 그녀의 반감이 신체 기관을 통해 느끼는 매우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역설하며 독자의 공감을 획득한다.

하지만 나이든 말린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베르나가 “꽤 깨끗하고 건강한”(329) 아이였다고, 과거 자신이 느꼈던 “문제가 무엇이었지? 오염, 전염”(329)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을 통해 노년의 말린은 과거 자신이 베르나에게 가졌던 반감이 위생 또는 건강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원초적 혐오감 즉 본능적 혐오감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베르나를 향한 혐오가 비합리적 감정임을 다음과 같은 서술로 드러낸다. 말린은 베르나의 미끄러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셀룰로이드 헤어핀”도, 자신에게 계속 먹이려 하는 “박하사탕”도, “박하의 끈질긴 혼적인 녹색의 점액질” 같은 베르나의 이쁨도 싫었다고 밝힌다(326). 즉 베르나를 향한 혐오감이 생명과 전혀 관련 없는 반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육과 전통의 결과”(『혐오와 수치심』 182)라는 누스바움의 주장처럼, 베르나를 향한 말린의 반감은 가족, 이웃, 공동체, 즉 “사회적으로 매개된 혐오”(239)이다. 누스바움의 주장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른들이 그러한 사

실을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피부색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73).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지닌 혐오의 수준은 부모가 지닌 혐오의 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179)라는 누스바움 주장처럼, 베르나에 대한 말린의 반감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습득한 결과이다.

말린은 베르나에게 보이는 엄마의 반응에서 차별을 가장 먼저 느낀다. 말린은 엄마의 말에서 “성격상의 위선”(326)을 인지한다. 가령 말린은 엄마가 베르나를 “불쌍한 것”(325)이라며, “어떻게 그녀가 태어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니?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니?”(326)라는 옹호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베르나가 다르다는 편견 특히 열등하다는 인식을 습득한다. 게다가 베르나를 보기도 전에 홈 부인 집에 가끔 방문하는 남자가 오면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엄마에게 주의를 들었는데, 말린은 그가 베르나를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325). 베르나를 향한 엄마의 동정, 홈 부인을 방문하는 남자에 대한 엄마의 경계 등에서 말린은 차별을 인식하고 베르나에게서 반감의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난 명백히 그녀[베르나]를 비난했다. 그것은 어쨌든 그녀의 잘못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였든,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내가 살던 그 시공간의 암묵적 판결에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심지어 어른들도 어떤 방식으로 미소짓는데, 나는 그들이 *단순하거나* 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태도에서 어떤 자제할 수 없는 만족감과 당연스러워하는 우월감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엄마도 이들과 같다고 나는 믿었다. (326)  
(이탈릭체 저자 강조)

말린은 자신이 베르나를 싫어하는 것은 베르나의 잘못이고, 이러한 믿음이 자신만의 유별난 감정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말린은 엄마의 언행 그 아래에 숨겨진 차별뿐만 아니라 당시 이웃 어른들의 위선을 감지한다. 가령 홈 부인은 자신이 사는 “그 거리가 둘 대집과 직장] 없는 사람들의 집들 사이로 사라진다”(324)며, 자신의 집 지나서는



직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깔보고 “생계 지원금”(On Relief)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말한다(324).

이와 같이 말린은 엄마와 이웃 어른들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자신이 베르나를 싫어하는 것이 엄마의 위선적 태도와 당시 이웃 어른들의 내면적 감정과 일치한다고 믿는다. 말린은 베르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혐오 대상임을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그래서 말린은 베르나를 꺼려하고 배제한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편견은 빈번하게 혐오를 일으킨다”(『혐오와 수치심』 239)는 누스바움의 주장이 확인된다.

베르나에 대한 말린의 부정적 감정은 말린과 베르나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더 공고해진다.

그녀[베르나]는 학교 운동장 한구석에 자리한 임시 건물에 있는 특수 반에 들어갔다. ... 그 건물에는 수용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코너가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우리보다 30분 늦게 등교하고 오후에는 30분 일찍 하교했다. 쉬는 시간에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그들이 보통 담장에 매달려서 일반 학교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을 겁주기 위해 [일반 학생들이] 돌진하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는 일들이 있었다.(326-27)

학교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특별한 학생’이라고 부르고, 학교 사이에 담장을 두고 일반 학생들로부터 장애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등학교 시간을 다르게 하여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킨다. 그 결과 부모와 이웃 어른들로부터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을 취학 전에 습득한 베르나를 향한 말린의 반감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더욱더 강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르두치는 장애인을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구별하는 자체가 “보다 구체적인 이념적 형태의 차별과 불안한 결합”의 성격을 띤 “정동”(affect)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71). 즉 정상인과 구별하여 장

애인이라고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베르나를 향한 말린의 혐오는 가족, 이웃, 학교에서의 “사회적 교육이 강력한 전달 수단”(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82)이 되어 말린에게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결과이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만연하였음은 당시 사회적으로 특히 “쿨리”(Coolie), “깜둥이”(darkie), “가격을 깎는 것”(jewling)과 같이 인종차별적 단어<sup>7)</sup>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사용되던 때(321)라는 언급에서 거듭 확인된다. 살펴본 것처럼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 symptom이다”(박권일 12). 그러나 어린 말린의 혐오감만으로는 베르나의 죽음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혐오감이 확대 강화되어 폭력으로 발현되고, 궁극적으로 집단을 결속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말린과 샬린의 관계 발전에서 보인다. 말린과 샬린은 금발, 파란 눈동자 등 신체적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쌓는다. 나르두치의 주장처럼 그들과 베르나의 차이는 베르나를 장애인이라는 “전형화된 인물로 축소시키”는 것이었지만, 말린과 샬린의 차이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주체로 자신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 된다(79). 나아가 자신들의 개인사를 공유하며 발전된 “서로를 향한 친밀감은 자신들의 혐오 대상을 공유하며 강화된다”(Darroch 117). 먼저 샬린이 자신의 오빠가 여자친구와 섹스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때 오빠 엉덩이에 난 뽀루지를 보고 혐오스러웠다고 이야기하자, 말린은 “역겨운”(sicking)이라는 단어와 함께 약 2년 전(7살 때) 처음 만난 베르나(Verna)에 대한 반감을 들려준다. 혐오가 “집단 내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유용한 역할”(『혐오와 수치심』 192)을 한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처럼, 말린과 샬린은 은밀하게 싫어하는 대상을 공유하며 둘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후 2주 캠프가 끝나가는 주말에 ‘특별한’ 학생들과 함께 베르나(Verna)가 도착한다. 이때 샬린이 먼저 베르나를 알아보고 베르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sick, 331)하며, 베르나의 긴 손이 말린의 “목을 조를 수 있다”(332)고 두려운 존재로 규정

한다. 베르나를 향한 반감과 두려움을 말린에게서 습득한 샬린은 더 강화된 혐오감과 두려움을 보인다. 작가 먼로는 말린과 샬린에게 “살해된 그 소녀 베르나는 전염과 같다”(Verna — the girl who is murdered — is like the contagion)며 두 아이의 베르나를 향한 두려움이 ‘전염’이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다. 즉 말린과 샬린이 베르나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분리의 욕구는 전염의 존재로서 베르나를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관계는 누스바움이 아이들의 유대와 배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대략 7, 8세)부터 아이들은 싫어하거나 외집단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의 피부에서 더러운 벌레를 잡는 시늉을 한다. 아이들은 불결하고 냄새나고 전염과 같이 혐오를 일으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에 기반한 사회적 예측의 방식을 실행에 옮긴다.(『혐오와 수치심』 183)

말린과 샬린은 베르나를 상대로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투사한 것이다.

그 결과 캠프 마지막 날 말린과 샬린은 바닷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물속에 빠진 베르나의 머리를 함께 누르며 “환희에 차”(gleeful) “삶에서 자신들 존재의 정점”에 도달한 감정을 공유하는데(346), 먼로가 인터뷰에서 밝힌 “아이들의 진정한 무자비함”(the genuine ruthlessness in children)이 잘 드러난다. 다르치는 말린이 베르나를 동물에 비유한 것을 살인 폭력의 “전조”(a prelude, 115)라고 분석하고 나르두치는 말린과 샬린의 베르나를 향한 폭력이 “사회규범이 주체 내면에 정동적으로 고착화된 방식”(81)임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특별한’ 즉 장애인인 베르나에 대한 혐오감은 타고난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 매개된 감정으로 그것을 9-10살의 어린 말린과 샬린이 체득하여 폭력으로 발현한 것이다.

### 3. 「브로크백 마운틴」:

#### 폭력으로 유지 및 전수 되는 투사적 혐오

누스바움은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투사적 혐오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투사적 혐오는 ‘그들은 냄새가 나고 짐승 같다’고 말하면서 혐오스러운 특성을 타인에게 돌리기 때문에 ‘투사적’이라고 불린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적 혐오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혐오하고 복종시킬 대상 집단은 인종적 하위 집단으로 피부색이나 겉모습에 규정된다. ... 성적 지향을 이유로 목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은 보통 신체적, 성적 본능과 매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여겨진다. 육체성이 강조된다는 뜻이다. (149)

누스바움은 외모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른 인종이나 소수자들에게 혐오스러운 특성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이유 중 육체성을 강조한다.<sup>8)</sup> 육체성 강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피부색, 인종, 성적 지향의 다름은 타고난 것으로 합리적인 위협이나 분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가진 다수자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들에게 혐오의 감정을 덮어씌우는 방식”(홍성수 6)으로 다른 육체적 특성을 가진 타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낙인찍는다. 즉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을 지배적 특징 및 성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름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타자화한다. 기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한 집단을 향해 투사한 혐오가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서 은밀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폭력을 통해 유지 및 이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주인공을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시키고 있음을 프루의 단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남성성의 전형”(the archetype of masculinity, Asquith 83)인 카우보이(cowboy)의 사랑 이야기이다. 작가 프루는 술집에서 한 카우보이가 남성들만을 쳐다보는데 “그의 표정에서 쓰디쓴 열망과 같은 어떤 것”(130)을 보고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Getting Movied”, 2005). 이러한 배경에서 창작된 「브로크백

마운틴」은 20세기 중후반에 거친 자연환경의 와이오밍(Wyoming)주를 배경으로 에니스(Ennis Del Mar)와 잭(Jack Twist)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프루가 “지방의 파괴적인 호모포비아 이야기”(a story of destructive rural homophobia, “Getting Movied” 130)<sup>9)</sup>라고 규정한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에게 혐오를 드러낸다.

엠펜은 『혐오사회』에서 혐오감이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아니”라며, “이 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22-23). 혐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 것으로 “모욕적인 언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통찰한다(23). 엠펜의 주장은 「브로크백 마운틴」의 주인공들의 주변 인물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서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난다. 먼저 평지에서 망원경으로 두 인물을 감시하는 목장 감독(foreman)인 아기레(Joe aguirre)는 두 사람의 섹스를 목격한다. 이후 그가 브로크백 산에 올라와서 잭에게 편지를 건넬 때 “말에서 내리려 하지도 않고 뻔히 바라보는”(260)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잭과 에니스의 관계를 불쾌해하며 부정하는 표시이다. 아기레는 다음 해에 잭이 일을 찾아 다시 왔을 때, 결국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고용을 거부한다(267). 애스퀴즈(Mark Asquith)가 아기레의 태도에 대해 “사회적 금기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고 하며, 두 인물을 브로크백 산에서 내려오게 한 자라고 규정한 것처럼(82), 그는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대표한다.

가족에게서도 에니스와 잭의 관계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뚜렷하다. 에니스의 아내인 알마(Alma)가 이혼 후 “추잡한 잭”(Jack Nasty, 271)이라고 부른 데서 질투가 아닌 부도덕성과 불쾌함이 드러난다. 잭의 아내 루린(Lureen)도 전화한 에니스에게 남편 잭의 죽음을 “침착한 목소리로”(in a level voice, 277) 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기보다는 공개적인 치욕을 감추고 있는 사람의 말투”(Asquith 93)이다. 즉 그녀는 슬픔의 흔적 없이 무감각한 목소리로 잭과 에니스의 관계를 ‘무너뜨리’(level)고 부정하는 것이다. 잭의 아버지 또한 북서부 와이오밍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잭의 아버지는 잭이 자신의 “재”(ashes, 279)가 브로크백 산에 뿌려지기를

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잭의 시신은 가족 공동묘지에 묻혀야 한다며 아들의 희망을 무참히 무시한다. 그는 죽은 아들을 끝까지 전통적 가족제도로부터 놓아주지 않는다. 잭은 죽어서도 가족 및 사회적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엠펜은 사회적으로 혐오 범죄가 가능한 것은 증오 대상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혐오 대상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은밀하게 묵인”(92)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바꿔 말해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 역시 폭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브로크백 마운틴」의 주인공들의 주변인들 역시 동성애 혐오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주인공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 당사자인 에니스와 잭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처음 성관계를 갖은 다음 날 에니스는 잭에게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260)라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잭 역시 “나도 아냐. 단 한 번의 일이야”(260)라며 응수한다.<sup>10)</sup> 이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바로 부인하는 데서 “사회가 금기시해 온 절대 불가라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응축된 사고”(남승숙 141)가 드러난다. 동성애 대한 사회적 반감이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두 인물은 다른 어떤 인물 못지않게 동성애 혐오자이다.

동성애 혐오가 폭력을 통해 세대로 이어지고 강화되는 것이 얼(Earl)과 리치(Rich)의 이야기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잭은 4년 만에 에니스를 찾아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이에 에니스는 “난 죽고 싶지 않아”(268)라고 잭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의 어릴 때 경험을 들려준다.

나이가 있는 두 사내가 고향에서 농장을 운영하여 함께 살았는데 얼과 리치였어. 아버지는 그들을 볼 때면 한 마디씩 말하곤 하셨지. 그들은 꽤 거칠고 나이가 있는 사내들이었는데도 조롱의 대상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9살이었을 때 얼이 용수루에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됐어. 사람들이 타이어를 떼어 내는 지렛대를 그에게 휘두르며 몰아댔어. 그리고 그의 성기를 잡고 끌고 다녀 결국은 그의 성기는 절단되어 피투성이가 되었지. 타이어를 떼어 내는 지렛대로 맞아서 그의 몸의 상처는 탄 토마토의 조각들이 그의 온몸을 뒤덮은 것처럼 보였고 그의 코는 자갈에 쓸려 찢겨졌어. (268)

어린 에니스는 얼과 리치 두 거친 성인 남자가 조롱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즉 에니스는 조롱의 대상이 되면 완력이 센 남성이라도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습득한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과 형을 데려가서 죽은 얼의 시체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념에 벗어난 개인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린치를 가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다. 한마디로 에니스의 아버지는 사회가 또는 공동체가 자신들과 다른 개인에게 혐오를 투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음을 에니스에게 각인시킨다.

에니스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혐오와 수치심』의 한 사례에서 들어보자. 스티븐 카(Stephen Carr)는 숲에서 숨어지내는 유랑자인데 야영지에서 성관계를 갖는 두 명의 레즈비언을 보고 총을 쏜다.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어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과실치사로 자신의 죄를 경감해 달라며 그 근거로 “레즈비언 여성들의 애정 행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혐오와 불쾌함”을 주장한다(14).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카 자신이 느낀 불쾌감이 합리적이고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카의 변론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일면을 보여준다. 누스바움은 카가 일급살인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많은 사례에서 실제로 형을 경감받는 현실을 걱정한다(17). 여전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의 변론은 에니스 아버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제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비합리적 심리 기제를 보여주고 있다.

얼의 이야기는 “비호감을 사는 사람들은 오염 ... 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 “그러한 사람들과 집단을 체계적으로 예측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혐오와 수치심』 240). 얼과 리치에게 가해진 폭력을 목격한 에니스는 결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얼이 당한 폭력이 에니스 자신의 아버지가 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에니스는 지금이라도 죽은 아버지가 돌아와 자신과 잰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죽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268). 잰과의 결합이 곧 죽음이라고 두려워하는 에니스를 통해 혐오 투사와 폭력 행사가 공동체의 범주화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로크백 마운틴」은 동성에 혐오가 가정, 사회를 통해 주입된 감정이고, 잭과 에니스의 사랑이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시사한다. 작가는 두 인물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인간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다음 예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에니스가 잭과 처음 육체적 관계를 가질 때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떤 행동 설명서도 필요하지 않았다”(259)고 묘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에니스가 1963년 여름에 잭과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그의 내장을 쥐어뜯는”(262)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차를 세우기까지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즉 에니스는 이 고통이 잭과의 이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일 년이 걸렸다”(267)고 나중에 잭에게 고백하는데, 이 사건은 에니스가 잭에 대한 사랑을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몸이 잭과의 이별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사건은 잭을 향한 에니스의 감정이 오히려 본능적임을 강조하며, 동성에 혐오가 학습된 감정임을 역설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대표하는 산과 문명을 상징하는 평지는 이들의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 사회적 생산물임을 함의한다. 프루가 에니스와 잭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브로크백 산 때문이다(“Getting Moved” 131)고 밝힌 것처럼, 이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한 곳이 브로크백 산이고 두 사람이 20년 동안 1년에 몇 번 만나 시간을 보내는 곳도 산이다. 가상공간인 브로크백 산은 이안 감독의 영화에서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sup>11)</sup> 원작 소설인 프루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는 두 인물을 둘러싼 거친 환경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 가령, 8월에 눈 폭풍이 부는 예측 불가능하고 무자비한 힘을 지닌 브로크백 산은 이들에게 “낙원이면서도 혹독한 곳”(Edgecombe 113)이다. 다시 말해 브로크백 산은 두 인물이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또한 여름 눈보라로 이들을 하산 즉 추방하며 자연의 중립적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는 둘은 함께 할 수 없다. 평지는 기존 가부장적인 결혼 시스템을 거스르는 이들의 관계를 부정하는 곳이다. 평지 인간사회가 이들을 부정



하는 비정한 곱임을 작가는 특히 에니스와 잭 두 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통해 보여준다.

가령 에니스가 어릴 때 3살 위의 형에게 매일 맞고 울부짖자 아버지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만큼 그 상대가 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은 없다”(267)고 말하며 형이 때리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공격하라고 충고해 준다. 에니스는 그대로 했고 형은 폭력을 중단한다. 에니스는 아버지에게 폭력이 삶의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배운다. 유사하게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잭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 잭이 3-4살로 어릴 때 소변을 볼 때면 번기가 높아 번기 주변에 소변을 흘리곤 했는데 어느 날 화가 난 아버지는 바닥에 엎어진 잭을 벨트로 때린다(280). 때리고 나서 아버지는 잭을 향해 소변을 본다. 이와 같이 에니스와 잭은 거친 아버지들에게 폭력이 삶의 한 방식임을 직접 체득한다. 거친 아버지들의 양육은 두 인물의 욕망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억압하여 에니스와 잭이 자신들의 감정을 처음 4년 동안 억누르게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한다.

평지에서 결국 잭은 죽고, 에니스는 잭을 잃는다. 이에 대해 남승숙은 작가가 “가부장제의 인습을 고수하려는 에니스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잭 둘 모두에게서 실패의 메시지를 전달한다(152)”고 분석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살아 있음’과 ‘죽음’이다. 어린 시절 얼의 죽음을 목격한 에니스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이혼 후에도 딸들 양육비를 지불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묵묵히 지켜나간다. 에니스는 “만약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건달 수밖에 없다”(283)는 생각을 고수하며 욕망을 스스로 억제(repression)하고 함께 농장을 운영하자는 잭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였기에 살아 있다. 한마디로 얼과 관련된 두려움이 그의 욕망을 억눌렀기에 에니스는 살아 있다. 반면 잭은 에니스를 다시 만난 후부터 삶을 함께하자고 계속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특히 에니스가 이혼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화했을 때는 그 먼 길을 바로 찾아가 함께 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에니스의 20년에 걸친 거절에 지친 잭은 아내와 이혼 후 “다른 농장 사람”(some ranch neighbor, 280)과 부모님의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이 계획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자 잭은 죽음을 맞이한다. 잭의 아내 루

린에게서 잭이 터진 타이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방치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니스는 잭이 얼처럼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믿는다. 사고인지 타살인지 논의는 차치하고 어쨌든 작가는 에니스가 아닌 잭이 죽음을 맞게 한다. 잭은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였기에 죽은 것이다. 따라서 잭의 죽음은 얼을 죽인 에니스의 아버지와 같은 혐오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루는 “이 작품을 쓸 때, 때때로 거의 울 뻔했다”며 “두 인물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른 방식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Asquith 92 재인용)고 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욕망과 불행을 참고 살아가는 순종적인 개인은 살아남지만, 사회적 통념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개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잔인한 사회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잭의 죽음과 가족묘지 안장은 작가가 믿는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세계의 가혹한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다.

#### 4. 나가며

사회적 소수 그리고 약자를 향한 혐오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따른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러한 혐오가 가정과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폭력을 통해 매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혐오를 느끼는 주체는 폭력을 행사하며, 혐오 대상자는 잠재적 폭력을 두려워하며 사회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 결과 폭력을 행사한 주체도 혐오 대상도 모두 자신들의 삶을 훼손한다. 가령 살린이 개신교인데도 임종 직전 남편 모르게 카톨릭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희망하는 것은 그녀가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살린을 도우면서도 자신은 속죄가 불가능하다(344)고 생각하는 말린은 살린의 죄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보여 준다. 살린과 말린에게서 폭력을 행사한 주체도 벗어날 수 없는 혐오 폭력의 희생자임이 드러난다. 프루 작품에서도 에니스와 잭만이 희생자가 아니다. 알마와 루린의 관점

에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사건으로 아내와 자식들 또한 사회적 혐오에 기인한 가정 붕괴의 희생자들이다. 이렇듯 기존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혐오감은 폭력의 대상자 및 주체자 모두를 희생자로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대상에게 점점 더 극단적으로 혐오를 투사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의 말처럼 주체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그는 「타자를 상상하는 일의 어려움」(“Das schwierige Bild des Anderen”)에서 “타인의 고통은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그러면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엠크 110 재인용)고 밝힌다. 이에 더해 타인의 고통이 혐오감에서 기인한다고 여길 때 사회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조하거나 참여하며 타인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혐오나 증오를 추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키워낸 불평등과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차이를 본질인 양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관점에 맞서”야 한다(엠크 16). 즉 약자 및 소수 집단을 향한 혐오감이 어쩔 수 없는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감정임을 인식할 때, 모두가 혐오 가해자이자 대상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선행될 때, 그래서 주체와 그 주변인 모두가 혐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혐오와 그에 따른 폭력이 사라지길 희망할 수 있다.

#### Notes

- 1) 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의 감정은 주체의 나약함 내지 불안 두려움, 공포를 드러내는 방증”으로 혐오감이 “어떠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일차적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하고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죄를 무겁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37)
- 2) 본 논문에서는 disgust 외에 aversion, repugnance 등의 단어도 혐오로 번역함.
- 3)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의 역서인 『혐오와 수치심』 에서는

저자명을 ‘누스바움’으로 표기했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는 더 일반적인 표기인 ‘누스바움’을 사용하였다.

- 4)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등의 이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위력에 따르면 약자에 대한 살인 충동의 원인은 결국 그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주체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 5) 누스바움은 “외양이나 태도에서 발달 장애의 징후를 지닌 사람을 보았을 때 약간의 원초적 혐오가 존재할 수도 있”(『혐오와 수치심』 176)지만 대개는 공동체로부터의 습득이라고 주장한다.
- 6) 이후 「차일드 플레이」의 인용시 쪽수만 표시함.
- 7) cooli는 옛 인도와 중국의 하급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 darkie는 깡둥이라는 흑인을 가리키는 매우 모욕적인 단어, Jewing에서 jew는 ‘속이다’, ‘값을 깎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이다.
- 8) 누스바움은 동성에 혐오 감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미국에서 중심적인 혐오의 대상 . . .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남성의 혐오다. 이성애자인 여성들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 도덕적 분개, 불안을 느낄 수는 있지만,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혐오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남성의 사고이고, 그 속에는 항문으로 침투될 수 있다는 상상이 스며 있다.” (『혐오와 수치심』 211)
- 9) 프루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사랑과 동성에 반감을 다루고자 했다고 밝힌다. (“Getting Movied” 131)
- 10) 넬워런(Patricia Nell Warren)에 따르면 1800년대 북서부 추운 산간 지역에서 일하는 카우 보이들 사이의 동성애는 묵인되어 오다가 현대 들어오면서 용인되지 않고 있다. (“Real Gay Cowboys and Brokeback Mountain”)
- 11) 브로크백 산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안(Ang Lee)이 감독하고 히스 레저(Heath Ledger)와 제이크 질렌haal(Jake Gyllenhaal)이 주연한 「브로크백 마운틴」 영화 때문이다. 작품 배경인 와이오밍 브로크백 산은 가상공간으로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은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의 록키 산맥이다.

## 인 용 문 헌

- 남승숙. 「금지된 꿈: 「브로크백 마운틴」의 동성애」. 『영미문화』, 9권 1호, 2009, 141-62쪽.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_\_\_\_\_.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임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20,
- 박권일. 「혐오의 시대를 종횡무진하는 날카로운 시대진단」.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정지인 옮김, 다산북스, 2017, 10-16쪽.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정지인 옮김, 다산북스, 2017.
- 홍성수. 「세상을 바꾸는 단초」.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임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20, 4-10쪽.
- Asquith, Mark. *Annie Proulx's Brokeback Mountain and Postcards*. Bloomsbury Publishing, 2009, pp. 77-95. *ProQuest Ebook Central*, <http://ebookcentral.proquest.com/lib/hufs-ebooks/detail.action?docID=4194722>.
- Darroach, Heidi Tiedemann. “‘Chunks of Language Caught in Her Throat’: The Problem of Other(ed) Minds in Alice Munro’s Stories of Cognitive Disability.” *Ethics and Affects in the Fiction of Alice Munro*,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9-26.
- Edgecombe, Rodney Stenning. “Displaced Religious Images in Annie Proulx’s ‘Brokeback Mountain.’”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37, 2011, pp. 113-22.
- Munro Alice. “Child’s Play.” *40 Short Stories*, edited by Beverly Lawn, Bedford/St. Martin’s, 2013, pp. 320-47.
- \_\_\_\_\_. “An Interview with Alice Munro.” *Virginia Quarterly Review*, 22 Oct. 2010,

<https://www.vqronline.org/interviews-special-projects/interview-alice-munro>.

Narduzzi, Dilia. "Regulating Affect and Reproducing Norms: Alice Munro's 'Child's Play'."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vol. 7, no. 1, 2013, pp. 71-88.

Proulx, Annie. "Brokeback Mountain." *Close Range: Wyoming Stories*, Scribner, 1999, pp. 253-83.

\_\_\_\_\_. "Getting Movied." *Brokeback Mountain: Story to Screenplay*, Scribner, 2005, pp. 129-42.

Warren, Nell Patricia. "Real Gay Cowboys and Brokeback Mountain." *The Brokeback Book: From Story to Cultural Phenomenon*, U of Nebraska P, 2011, pp. 274-76.

Warwick, Susan. "Alice Munro and the Shame of Murder." *Ethics and Affects in the Fiction of Alice Munro*, Palgrave Macmillan, 2018, pp. 127-52.

## Abstract

### Disgust in Alice Munro's and Annie Proulx's Short Stories : Instinctive or Learned?

Byounghee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y analyzing the two modern short stories—Alice Munro's "Child's Play" and Annie Proulx's "Brokeback Mountain"—this paper aims to show that violent expression of disgust at home and in society is not an instinctive reaction, but something that is learned from the community. To make the case, this paper examines and cites Martha Nussbaum's theory of disgust. Nussbaum delves into the feeling of 'disgust', arguing that emotion is not instinctive, but is the result of the action of thinking based on belief and understanding, and she categorizes the feeling of disgust into "primary disgust" and "projective disgu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in "Child's Play" whereby the protagonist unknowingly embodies disgust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childhood. Projective disgust is not only distinguishable from instinctive disgust, which is inherited genetically, but also works as a mechanism for solidarity and exclusion in group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ways in which disgust in "Brokeback Mountain" is transmitted and maintained through violence, preserves existing ideologies, and controls the life of the protagonist especially his fear of being an object of disgust.

**Keywords:** disgust, projective disgust, primary disgust, Matha Nussbaum, violence

논문접수일: 2024.5.15

심사완료일: 2024.5.30

게재확정일: 2024.6.08

이름: 강병희

소속: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강사

이메일: woolf\_lawrence@naver.com